

소비자

■ 보험 계약 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암·생명·종신 보험 절대 깨지 말라

금전적 손실 많고 향후 동일한 조건 가입 어려워
긴급자금·목돈 필요엔 중도인출·계약대출 활용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보험이다. 보험은 중도해지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데다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깨서는 안되는 보험도 있다. 보험을 해약하기 전 미리 알아둘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절대 깨서는 안될 보험=가장의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가족의 위험을 덜어 주는 소득보상보험(종신보험, CI보험)은 경제적인 담보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보험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던 주 계약을 최소로 낮추고 자산형성과 은퇴시기를 고려해 60세나 65세까지 사망보험금을 담보해주는 '정기

특약'을 활용하면 보장규모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암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 생명보험도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보험들이다. 질병보험은 의료비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 병원비가 많이 드는 시기에 보장금액이 2~3배 늘어나는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현재 암 진단비로 3000만원의 보장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60세 이후에 받게 되는 보상금액은 30년 후 실제로 받게 되는 의료비의 1200만원(물가상승률 3%를 적용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비가 증액되는 형태의 보험

에 가입하면 향후 추가적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계약 해약전 확인할 것=보험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금전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공제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 향후 동일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자금사정이 회복될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납입해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나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80~

90% 수준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화, 모바일, ATM(CD기)으로도 본인 확인 절차 후 대출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자동대출납입을 고려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이 유효하다. 보험금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종신보험 등은 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환자의 치료나 간병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보유 중인 보험상품에 선지급서비스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2일 서울 시내에서 실시한 '신세계 굿럭트럭' 행사 모습.

광주신세계 '하이브리드 마케팅' 나서

〈SNS+길거리 마케팅 결합〉

'행운트럭' 오늘 상무지구·충장로서 참여고객에 선물

(주)광주신세계가 백화점 공간에서 벗어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길거리 마케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마케팅'에 나선다. 신세계백화점 개점 82주년 기념행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존 백화점 공간에서 벗어나 선물을 실은 '행운트럭'이 페이스북, 트위터에 예고된 장소를 찾아가 참여고객들에게 선물을 직접 증정하는 이벤트다. 광주지역에서는 9일 낮 12시 상무지구에서 출발해, 충장로, 전남대 후문 일대를 찾아간다. 한편 지난 2~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의정부점·영등포점이 백화점 주변 거리에서 '행운트럭' 행사를

진행한 결과 신세계 페이스북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응답한 고객은 5만 명에 달했고 페이스북 회원도 기존 1만1000여 명에서 1만8000여 명으로 7000여 명 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종이 전단지나 DM(Direct Mail)의 응답률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50만부 이상의 광고물 발송과 같은 효과를 낸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 광주신세계 측의 설명이다. 광주신세계는 이번 행사를 위해 30만원 상당의 스마트 카메라를 포함해 20만원 상당의 삼성 도킹 오디오, KBS 예능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강지창 캐릭터인 브라우니 인형, 스타

벅스 텀블러 등 다양한 경품을 준비했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신세계 페이스북에 고지된 행사 예정 장소에서 선착순으로 미션을 완수하는 등 이벤트 참여를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신세계 영업기획 팀장은 "신세계백화점의 개점 82주년을 기념해 광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신세계 굿럭트럭' 행사는 오프라인 형태의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을 넘어 SNS와 결합된 신개념 하이브리드 마케팅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며 "향후 광주신세계도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하이브리드 마케팅'을 개발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생명보험도 온라인 상품 시대

생명보험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보험을 신청·계약하는 온라인 상품 시대가 열린다. 보험설계사나 텔레마케터를 거치지 않기에 보험료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생보사들은 온라인 시장 선점을 위해 전걸음을 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가 온라인 생명보험 설계사 등 안 거쳐 보험료 저렴 교보·한화 등 자회사 설치 준비

업무를 연내 설치해 온라인 보험 상품으로 승부수를 던질 예정이다. 녹십자생명에서 이름을 바꾼 현대라이프도 온라인 보험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생보사가 뛰어드는 온라인 보험이 AXA다이렉트나 하이카다이렉트 등 온라인 손해보험사와 다른 점은 판매 채널에 있다. AXA다이렉트 등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판매 기법을 모두 사용하는 반면에 이들 생보사는 100% 인터넷 신청만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와 텔레마케터가 필요가 없어 사업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객로서는 보험료를 10~20% 절약할 수 있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대거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자 업계 1위 삼성생명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온라인 보험에 손을 대고 싶지만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 채널이 막강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이 뽀빠로(11월 11일)를 앞두고 하트모양 뽀빠로 등 이색 뽀빠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여행사 창업 정보 알려드려요

한국인력개발원 내일 광주교육센터서 설명회

주5일제 시행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광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주)한국관광인력개발원(대표 지민신)이 10일 오전 10시 광주교육센터(금남로4가 4번출구 리블차이나 중국어학원)에서 여행사 창업 무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창업 설명회에서는 여행사 설립절차, 창업비용, 성공적 창업 사례, 여행업 경향 분석 등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한국관광인력개발원

'여행사 창업 예비 CEO 과정' 1기도 모집한다. 이번 광주지역 교육과정은 관광·여행산업에 대한 이해부터 여행산업 판매전략, 여행사 실무과정, 영업·마케팅 전략 등 현장중심의 실무과정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17~18일 이를 통한 진행된다. (주)한국관광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 관계자는 "여행사 창업은 타 분야에 비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최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분야"라며 "특히 은퇴

를 앞둔 세대들에게 또 다른 창업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국관광인력개발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창조관광 벤처사업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업체다. 여행사 창업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름·나이·연락처를 적어 이메일(littlechina@hanmail.net)이나 홈페이지(http://www.littlechina.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33-9582, 010-6610-3344.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Little China' (작은만남 큰 기쁨!!) featuring a grid of 30 business listings with details like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